

#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상영작 라인업 공개

임태규 감독 '파도치는 땅'  
이학준 감독 '굿 비즈니스' 등  
5편 선정... 작년보다 2편 증가  
올 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상영



(사진 왼쪽부터)임태규 감독, 장우진 감독, 이학준 감독, 카밀라 호세 도노소 감독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장편프로젝트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8' 상영작 라인업이 공개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23일 시네마 프로젝트에서 선보일 작품으로 '파도치는 땅'(감독 임태규), '겨울밤'(장우진), '굿 비즈니스'(감독 이학준), '태양이 항상 바다로 지는 것은 아니다'(감독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알멘드라스), '노나'(감독 카밀라 호세 도노소) 등 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기할 만 한 점은 이전까지 매년 세 작품을 선보였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다섯 작품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기나긴 동면에 접어든 한국영화의 잠재적 가능성에 모험을 걸고 세 작품 모두 한국독립영화를 선정했다면, 올해는 이 프로젝트의 국제적 공헌도 및 확장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영화 3편 외에도 외국영화 2편을 추가했다.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알멘드라스 감독의 '태양이 항상 바다로 지는 것은 아니다'는 체코의 한 작은 마을에 새 연극을 올리려는 한 중년 연극연출가의 망가지는 일상을 소재로 한다. 절망에 빠졌을 때조차 최선의 삶이 가능하기를 묻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 영화다.

'노나'는 사랑했던 연인에게 복수한 뒤 칠레의 작은 해안 마을에 피신한

후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예술여성 살 여인 노나의 삶을 그린다. 카밀라 호세 도노소 감독은 "노나는 폭력과 전투의 중심에 내몰리지만 결코 희생의 상징은 아니다"면서 "모든 관습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추구하는 이 영화는 나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라고 작의를 밝혔다.

'굿 비즈니스'는 탈북 인권운동가의 삶을 해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탈북자들과 탈북 브로커들 사이의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관계 조망은 물론 사신을 넘나드는 탈북과정의 생생한 취재가 극영화화 따라올 수 없는 긴장감을 준다. 이학준 감독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난민들의 인권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탈북 드라마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했다"며 "지난 5년 동안 브로커

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혹은 인권운동가와 동행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고 영화의 제작 배경을 밝혔다.

'겨울밤'은 30년 만에 출간 청평사를 찾은 중년의 부부가 첫 관계를 맺었던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서 대면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는다. 장우진 감독은 이 단순한 스토리를 통해 "사람들의 과거·현재·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파도치는 땅'은 평생 고기잡이 배 선장으로 살다 피랍되고 돌아온 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세월을 살았던 아버지를 외면하고 연좌제를 피해 학원 원장으로 살았던 중년의 주인공이 아버지의 임종을 계기로 고향에 돌아와 가족과 주변사람들과 화해하는 내용을 그린

다. 임태규 감독은 "자꾸 덮어두려 했던 과거사와 미뤄두었던 관계의 문제가 세 시대를 가로지르며 남긴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한국의 산하 아래 가려져 파도치듯 일렁이는 아픔과 재산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8'은 80여 편의 한국작품과 30여 편의 해외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김영진 수석프로그램머는 "선정 작품 대다수가 역대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세계 영화계에 이름을 남긴 감독들의 신작"이라며 "영화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이들 젊은 감독들과의 연대를 통해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영화는 오는 5월 3~12일 열리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 /정해은 기자



## 특화 박물관 이미지 부각 다양한 근대문화행사 진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올 사업계획 발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3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2018년 주요시정 계획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관광광역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박물관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박물관으로서 20여 회의 기획전 및 특별전을 열었고, 박물관 벨트화지역에 국한된 스탬프 투어 대상지를 원도심 '군산화교역사관'까지 확대 운영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한해 협약기관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서천지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에는 특화된 지역박물관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근대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박물관 / 구암동3·1전시관 / 채만식문학관 / 철새조망대를 잇는 순환버스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군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전국 최고의 근대박물관이라는 명성을 재확인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김광근 기자



##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3D 증강현실 트릭아이

군산예술의전당은 겨울 군산예당 'AR 뮤지엄 in 군산' 27일부터 33일간 무료 진행 할 예정이다. 주현호 예술의전당관 전시로 'AR(증강현실) 트릭아이 뮤지엄 in 군산'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33일간 예술의전당 2, 3 전시실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AR 트릭아이 뮤지엄은 2차원의 작품에 가상의 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AR(증강현실)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생생하고 역동적인 장면을 찍을 수 있는 복합체험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화려한 색감과 통통 튀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세계명화 및 애니메이션 17개 작품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개성을 살려 기억에 남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마음껏

리과장은 "트릭아이 뮤지엄은 세계최초 3D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큰 호응을 받은 인기전시로 이번 겨울방학동안 온 가족이 예술의전당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밖에도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며 2월 24일에는 웹메이드 창작뮤지컬이라 불리는 '김종욱 찾기'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arts.gunsan.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군산=김광근 기자

## 도립국악원, 도내 복지시설 방문 공연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이태근)은 평소 전통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의 정서적 함양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협장을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꽃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예술나눔'을 주제로 도내에 소재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연을 펼친다. 전통예술의 진수를 선사할 복지공연은 14개 시·군별에서 1회 이상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연 진행에 앞서 국악원은 사전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를 받아 1차로 12개 시설을 선정했다. 24일 '정읍시 노인복지관'과 '신태인 동행요양원'을 시작으로 총 20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부안·김제, 26일엔 남원·순창에서 그리고 2월 6일 진안·완주, 7일 무주 2개 지역, 8일 군산·전주에서 잇따라 공연을 선보이며 7월과 12월에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

무대에 오르는 25여명 규모의 공연팀은 전통민요 배우기, 국악합주, 국악가요, 판소리, 무용, 민요, 태평소시나위 등의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문화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이태근 원장은 "지난해 공연을 관람한 복지시설들의 확대 요구와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 '복지시설공연'을 기존 20회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술을 통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문화복지 지원 자문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자문위원회를 센터 세미나실에서 23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선 김완순 교통안전관장, 오병기 전주미술협회 회장, 이문수 전북도립미술관장, 김창주 전주문화재단 팀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소소담' 기획전시 작품 및 작가 추천과 전시 희망 작가의 포트폴리오 심사 및 작품 선정, 작은 음악회인 '열린 문화공연'의 내실화, 그리고 '전북여성백일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윤에 센터장은 "소소담이 센터의 질 높은 문화혜택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호소문>

## 두 번째 '종교살인'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또다시 기독교계 기성교단의 종교 탄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모든 불법행위를 가족들에게 하도록 지시하고 개종목사 본인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도록 피하는 강제개종사업은 결국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리만 전락 개종목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강제개종교육의 근절과 이를 사주하는 개종목사의 처벌을 청와대 탄원 등을 통해 요구해온 20대 여성이 2017년 12월 29일 전남 화순의 외딴 펜션에 감금된 상황에서 부모에 의해 고, 입이 묶여 막혀 질식사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적으로 납치, 감금, 결박, 폭행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강제개종교육은 더욱 가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개종사업가인 김 모씨는 개종사업이 돈이 된다고 목사들에게 이를 권장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16년에도 개종사업을 하는 목사의 기획 하에 납치, 감금당한 채 44일이나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에 고인은 죽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 나라에서 실현되기를 외쳤다.

다육 개탄스러운 것은 20대 여성이 납치된 직후 경찰이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종교문제' 가족문제'란 이유로 방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이 여성은 죽음에 이르렀고 경찰은 실종자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인은 지난해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호소했다. 고인이 남긴 국민신문고의 글에 귀 기울이고 이 호소에 대통령과 사법당국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과 사법당국에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촉구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개종사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죽어나가고 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고인의 사망은 가족들에게 '자녀가 종교에 빠졌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뒤 사체금을 받고 납치, 감금, 결박을 가족들에게 지시해 장기간 비방교육을 하는 전형적인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누가 저들에게 국민을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가?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종교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살인까지 사주하는 그들의 실태를 적시하고 대책을 세우라.

지난 2007년 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찾아와 40대 여성을 망치로 때려 사망케 한 사건 이후 두 번째 '종교살인' 이다. 울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역시 개종목사와 소속 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불법감금을 조성하고 분노를 유발해 해 납치, 감금, 폭행을 사주하는 개종 목사들의 돈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사건이었다.

이번 20대 여성의 질식사에 대한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라. 딸의 죽음으로 한 가정이 처절하게 파괴된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을 발본색원하라. 다시는 이 땅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맞아 죽고, 입이 묶여 막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종교육을 돈벌이로 하는 개종목사들을 엄하게 처벌하라.

이 사건에 대해 기성교회와 한 목사는 2015년 모 언론사 기고 칼럼을 통해 '살인을 한 전 남편이 이해된다'는 주장을 펴 개종사업을 바라보는 목사들의 그곳엔 민심이 정역을 금치 못하게 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2018년 1월 21일

